




KOGA, KOCHAM, 대사관 ... P. Hanif 노동부장관과 간담회 가저
KOGA는 최근 이슈가 된 SKB근로자 임금체불과 관련한 인니정
부의 입장과 또 해결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 봉제산업 선도하는 KOGA Vol. 15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KOGA KOREA 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IN INDONESIA

KOGA 대사관 초청 간담회 가져



지난 1월 17일 수요일 대사관 5층 대회의실에서 대사관 초청 KOGA 대표 회원사와 대사관의 간담회가 있었다. KOGA에서는 박재한 코가 회장을 비롯해 안창섭 수석 부회장님, 이규백 태평양 상무, 고정윤 모락스, 강원구 SGWICUS, DOOSAN 김귀식전무, 세아 우향근차장, 안선근부회장, 김동석사무총장, 박시은사무국장이 참석했고, 대사관에서는 김창범 대사님, 전조영 공사님, 문양택 사무관, 김영미노무관, 김영상국세관, 백형민관세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김창범 대사 올 해 들어 처음으로 갖는 업종 및 단체별

첫 간담회를 코가와 가지게 되어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고 대선과 관련하여 환율로 인한 변동으로 불안한 시국이지만, 최근 미중간 무역갈등으로 인해 오히려 어려운 상황속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으며 오늘 자리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발전하는 기회로 삼자라고 하셨습니다. 코가 박재한회장은 1990년 봉제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된 이래 노동집약적 사업을 하는 봉제는 임금부분에 가장 민감하고 또 취약하고 지난해 한인 봉제기업은 약 40억불의 수출을 했고 고용인원 50만명

에 달하며 300여 회원가 있는 코가협회이지만, 최근 가파른 임금 인상으로 중부, 동부등 시외곽으로 계속해서 빠져 나가는 추세여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안창섭부회장은 가까운 동남아인 베트남과 방글라데시의 근로시간, 잔업시간, 시간당 최저임금을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열악한 인도네시아 현실을 설명했고 이런 상황에 버틸 수 있는 방안으로 '특별임금' 만이 봉제가 버틸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했다. 5년전 2017년까지는 특별임금을 적용받아 잘 버텨왔으나 2018년은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고 다행히 뿌르와카르파 지역은 2019년 특별임금을 적용받았으나 보고르느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KOGA는 지난해에 이어 2019년에도 회원사의 권익과 경영환경 개선등 실속있는 경쟁력을 갖추기위해 대사관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각 기관과의 간담회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다.

자카르타 업종별 최저 임금 결정...자동차는 10% 인상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특별주에서 올해의 부문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약 8.03%. 중앙 정부가 정한 주 최저임금(UWP) 인상률과 같았지만 자동차·이륜차 분야는 10% 상승으로 이 수준을 웃돌았다. 이로써 일부 업종에서는 500만 루피아를 넘어섰다. 부문별 최저임금은 자카르타 특별주정부가 지난달 23일자 로 공포한 주지사령 '2019년



제6호' 에 의해 규정됐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1개 분야의 80개 업종에 적용되며 근속 1년 미만의 직원에게 해당된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분야는 금속·전기·기계 분야 18개 업종 중 전기오토바이, 발전기, 변압기, 전력측

정기를 포함한 전력관리 장비 분야로 월 500만 443루피아였다. 자동차 부문은 9개 업종 중 이륜차 산업, 사륜차 산업, 중장비 산업의 3개 업종이 월 494만 2,113루피아, 나머지 6개 업종이 491만 7,511루피아로 모두 전년 대비 10% 상승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일당으로 설정)은 일부 직종에서 상승률이 14%대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조꼬위, 우세 확인... 쁘라보워, 고학력층 부문 우세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 유권자 가운데 11.5%를 차지하는 대졸 이상 고학력층에서 뿌라보워 후보가 44.2%로 조꼬위 후

1차 TV대선 직후 여론조사... 조꼬위, 뿌라보워보다 23%포인트 앞서

인도네시아 차기 대선을 2개월여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조꼬 위도도(일명 조꼬위) 현 대통령이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 대선후보인 뿌라보워 수비안또 그린드라당 총재가 전체 유권자 가운데 11.5%를 차지하는 고학력층 부문에서 우세를 보인 만큼 재선을 낙관하기는 일러 보인다고 8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여론조사기관 LSI (Lingkaran Survei Indonesia)이 실시한 2019 대선 당선 가능성을 가늠하는 여론조사에서 조꼬위 대통령이 뿌라보워 후보를 크게 앞섰다. LSI는 지난달 18일부터 여드레 동안 전국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조꼬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마름아민 전 울라마협의회(MUI) 의장은 54.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1차 TV대선토론 직후 실시됐다. 뿌라보워 후보와 러닝메이트인 산디아가 우노 전 자카르타 부지사의 지지율은 이보다 23.8%포인트 낮은 31.0%에 그쳤다. 양자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 1월 이뤄졌던 같은 여론 조사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 37.7% 보다 우세를 보였다. 고학력층이 대선에서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선을 앞둔 2개월 동안 얼마만큼 격차를 줄일 수 있을 지에 관심을 끌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무슬림 △소수자 △중하층 소득계층 △여성 △밀레니얼 세대 △고학력층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계층별로 조사했다. 인도네시아 차기 대선은 올해 4월 17일 총선과 함께 치러지며, 약 1억8,700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현재까지의 판세는 조꼬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조꼬위 대통령은 친서민·개혁 정책을 내세워 돌풍을 일으켰던 2014년 대선 당시와 달리 독보적으로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무슬림 과격파의 음해를 막고 보수성향 유권자를 끌어안기 위해 영입한 조꼬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마름 전 의장과 신선한 이미지의 비즈니스맨 출신인 뿌라보워의 러닝메이트 산디아가 전 자카르타 부지사가 남은 기간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 지가 승패를 가늠할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4PL

- 항공, 해상운송
- 내륙운송
- 통관대행
- 물류 컨설팅
- 물류 OS
- W&D 사업



Wisma Korindo 9th FL, Telp. : +62-21-797-6237
 Jl. MT. Haryono Kav. 62 Fax : +62-21-797-6015
 Jakarta, 12780, Indonesia E-mail : kor@f1-logix.com

KOGA, KOCHAM, 대사관 ... P. Hanif 노동부장관과 간담회 가져



지난 주 KOGA와 KOCHAM, 대사관이 함께 노동부장관 P. Hanif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이슈가 된 SKB근로자 임금체불과 관련한 인니정부의 입장과 또 해결 모색을 위한 자리였다. 간담회는 Criminal case로 향

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 부처에 협조예정이고 내주중 노조대표, 노조측변호사등 노동부초청 대사관, 코참,코가가 참석하여 2차 대책회의를 진행 예정의 내용으로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

KOGA는 최근 한국기업, 특히 봉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이슈인 만큼 인니 정부처원에서 어떤 대책을 간구하게 될지 진행사항 계속 업데이트해 회원사들에게 공지할 계획이다.

산업장관,

“중기업들, 인니 섬유 산업에 10조 루피아 투자 계획”



인도네시아 아이르랑가 산업 장관은 최근 중국 기업들이 올해 인도네시아 섬유 산업에 10조 루피아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 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생산 거점을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전함으로써 미국이 중국 제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중국 기업들은 방사 및 섬유, 염색, 인쇄 등 섬유 산업의 전방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다” 고 발

언했다. 그는 또한 “섬유 및 신발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하며 “무역 전쟁이 인도네시아 제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 전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또한 철강의 대미 수출액에 대해 “지난해 1~11월은 전년 동기 대비 88%의 대폭적인 증가를 기록했다” 고 설명하며 “중국과 미국에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가동률과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움직

임도 나오고 있다” 고 말했다. 하지만 장관은 “무역 전쟁으로 결국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현재 3~3.6%의 낮은 수준으로 인도네시아 경제에 좋은 영향을 기대할 수 없다” 며 우려를 표명했다.

투자조정청, 인허가 OSS 시스템 업무처리 속도 높일 것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의 토마스 렘봉 청장은 7일, 인허가 신청 및 발급 절차를 온라인으로 일원화하는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을 3월부터 본격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OSS 시스템은 지난해 7월 경제조정성부에서 처음으로 운용을 개시, 1월 2일에 BKPM에 운용 권한을 넘겼지만 아직 허가 발급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지 언론 콤포스 7일자 보

KOGA - SUBANG 신임 군수와 면담



지난 1월 18일 KOGA는 수방지역 봉제완구 업체 대표자 및 수방군수,노동부사무소장,APINDO의장등과 서부자바 수방군 군수 관사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2018년 지역단체장 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신임군수 PAK.ROHIMAT과 지역 노동부 사무소장, 수방 APINDO의장등이 모여 수방지역 기업체들의 당선축하인사를 전하고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에 따른 경영환경의 어려움에 가중하여 수방군 지하수 사용료 대폭 인상 결정에 따른 재심을 요청할 목적이었다.

KOGA는 친 기업 정서를 가

진 신임군수와 면담을 통하여 어려운 노동집약산업체인 봉제/완구업체들의 경영환경을 전달하면서 최근 대폭적으로 인상된 지하수사용료 산정에 대한 재심요청 및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여과로 부도위기를 겪고 있는 업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고용불안 상황을 수방군 정부관계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면서 지역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신임군수는 투자 기업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위하여 분기별로 관련기관장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만들어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 방향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도에 따르면 토마스 청장은 “(OSS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라고 지적하며 “3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건축허가(IMB) 취득 절차도 OSS로 진행하도록 개정할 방침으로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IMB의 취득 절차가 OSS로 단순화되면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비즈니스 환경 지수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BKPM은 올해 목표 투자실현액(석유 가스, 금융 등 제외)을 전년 대비 9.8% 증가한 792조 루피아로 설정했다.

SunStar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한민국 대표 재봉기,자수기!

썬스타 인도네시아 직영법인

실속형 패턴출시

- 전회전 가마타입
- 가로300,세로 200 사이즈 (mm)
- Max Speed 2,200rpm

- ▶ FAST, ACCURATE SERVICE UP
- ▶ 재봉기 / 자수기 부품
- ▶ 보드수리 완벽구비!!!



신형패턴 SPS/R-3020H, 2010H

SunStar
SWF

인도네시아 총괄 강현욱 이사

재봉기 오경환 팀장 001-62-821-4303-8822
자수기 강현욱 이사 001-62-858-8896-7825

okh@sunstar.co.kr
kevinkang1103@gmail.com

북미 2차 정상회담의 무대가 베트남으로 확정되면서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룬 베트남의 개혁·개방 모델인 ‘도이머이’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북미 양측이 모두 성공적인 모델로 보고 있고,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룰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도이머이는 바꾼다는 뜻을 지닌 베트남어 ‘도이’와 새롭다는 뜻인 ‘머이’의 합성어로 쇄신을 의미한다.

1986년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채택한 슬로건으로 토지의 국가 소유와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도입, 경제발전을 도모하기로 한 것이다.

응우옌 반 린 당시 공산당 서기장이 주도했다.

1975년 끝난 베트남전에 이어 1979년 발발한 중국과의 국경전쟁,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한계에 따른 식량 부족과 700%가 넘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이 초래되자 돌파구를 찾았다.

당시 상황은 ‘개혁이나, 죽음이냐’라는 슬로건이 나올 정도로 절박했다.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던 것이다.

1980년대 초 일부 지방의 농업 분야에서 중앙정부 몰래 시행한 도급제(할당량만 채우면 나머지는 농민이 갖는 제도)가 상당한 성과를 거둔 점은 도이머이 도입을 가능하게 한 긍정적 요인이었다.

쇄신의 길을 택한 베트남은 1987년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해 적극적인 외자 유치에 나섰다.

1989년 캄보디아에서 군대를 완전히 철수해 중국에 이어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난 것도 실질적인 도이머이를

주목받는 베트남 ‘도이머이’ 개혁·개방 모델

공산당 독재 유지하며 시장경제 도입...외국자본 유치해 고속성장 피치 “北에 베트남식 개혁이 최적”...빈부격차·부패 등 부작용도



▲ 리용호 북한 외무상(왼쪽), 베트남 총리 면담 [연합뉴스 자료 사진] ▲ 베트남 수출 상승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위한 베트남의 결단이었다. 베트남은 1993년 토지법을 개정해 담보권, 사용권, 상속권을 인정했고, 1999년과 2000년에는 상법과 기업법을 잇달아 도입해 민간기업이 성장하는 길을 닦았다.

덕분에 연평균 6.7%의 고성장을 계속해 1980년대 100달러 안팎에 그쳤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8년 1천 143달러로 증가해 중간소득 국가군에 진입했다. 베트남은 이후에도 고성장

기조를 유지, 지난해에는 1인당 GDP가 2천587달러로 뛰었다.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베트남의 작년 GDP 성장률은 10년 만에 최고치인 7.08%를 기록했고, 올해도 6.9~7.1%

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도 해마다 늘어 작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180억 달러에 달했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말 현재 15억5천만 달러를 유치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9.2% 증가했다.

그러나 고도성장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빈부격차 확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확산, 환경오염 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외국자본에 의존한 경제성장으로 자생력을 키우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해 말 베트남을 방문, 이런 도이머이의 성과와 노하우, 부작용 등을 현장에서 배웠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피치솔루션스도 최근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한 현실적 모델로 베트남이 최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연합뉴스]

신한, 인도네시아서 1,000억대 캐피탈 인수 추진

신한금융그룹이 1,000억대 규모의 인도네시아 리테일금융(소비자금융) 전문 캐피탈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인도네시아 소비자금융사 인수를 놓고 막판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수금액은 1,000억 원 규모. 신한금융의 한 관계자는 “할부금융에 시너지를 낼 현지 캐피탈사 (M&A를 위해) 들여다보는 중”이라면서도 “가격 이슈가 최종 변수”라며 조심스럽게 전했다.

신한금융이 인도네시아 캐피탈사 인수에 나선 것은 현지 할부금융 시장의 매년 폭발적



인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KB금융과 1위 경쟁을 넘어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조용병 회장이 적극적으로 인수합병(M&A)에 뛰어든 결과라는 분석이다.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신차 시장이 연간 100만대, 오토바이 시장이 600만대 규모로 대부분이 할부금융을 끼고 구입한다. 특히 오토바이 등록 대수는 1억 1,500만대로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한다. 신한금융은 이미 현지에 나가 있는 신한카드의 신한인도파이낸스(PT Shinhan Indo Finance)와의 시너지를 통해 할부 시장 진출을 공격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현지 금융권 관계자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담보가 있고 차주도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연체 관리만 잘하면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신한카드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중고 차량 대출을 중심으로 다루는 BFI 금융(PT BFI Finance Indonesia)의 지분매각(42.8%) 예비입찰에 참여했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번에 현지 캐피탈사를 인수하면 아픈 기억을 만회하게 되는 셈이다.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paran.kwo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용상 : 0815 1902 4176



김재훈의 세무상식

재난 성금에 대한 손금 산입(법인세 비용 인정)여부



□국가가 정한 인도네시아 내에서 행해지는 연구 개발을 위한 기부금

□국가가 정한 사회 기반 시설 구축 비용

□국가가 정한 교육 시설을 위한 기부금

□국가가 정한 체육 기금을 위한 기부금

상기 기부금과 관련한 세부 시행령으로 2010년 정부령 93호 (PP 93 / 2010)에 규정되어 있는데 재난과 관련한 기부금을 살펴보면,

국가가 정한 국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기부금이란 : 납세자는 국가 재해 피해자에게 기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재난 관리 기관을 통해 직접 제출하거나 재난 구호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허가 된 기관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국가 재해” 가 의미하는 것은 자연적 요인 및 / 또는 비 자연적 요인 및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인적 요인으로 인해 생겨난 사람들의 삶과 생계를 위협하고 중단시키는 일련의 사건 또는 일련의 사건으로 환경 피해, 재산 손실, 심리적 영향 등이 포함된다.

“재난 관리 기관” 의 의미는 재난 관리와 관련하여 2007년 법률 번호 24 (UU No24/2007) 에 언급 된 국가 재해 관련 기부금을 수용, 배포 및 / 또는 관리하도록 정부가 결정한 기관이다.

기부금의 손금산입 조건 :

-납세자는 직전년도 법인세를 근거로 순이익이 있어야 하고 기부금을 손금 처리하여도 결손이 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2017년도에 PT. A 기업의 순이익은 10억 루피아였고, 2018년에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기부금을 40,000,000 루피아하였고 2018년 순이익이 30,000,000 루피아였다면 10,000,000 루피아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유효한 증빙 자료

손금산입 한도 :



김재훈 대표

세무조정후 순이익에서 최대 5% 사례 예 :

2017년 납세자의 순이익은 60억 루피아일 경우 2018년 기부금 손금 최대 금액은 5% 또는 3억 루피아인데, 2018년 납세자는 5억 루피를 정부 지정 기관에 기부했을 경우 차액 2억 루피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끝>

문의 : kimjhoon@bngconsulting.co.kr

약력

PT. BNG Consulting 대표
재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사무국 사무차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니세무 자문
Toray Group (TPJ) 세무자문 위원
인도네시아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Tax Lawyer)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TEL : 021 522 2739
e-mail : kimjhoon@bngconsulting.co.kr

롬복 지진 팔루 쓰나미, 반텐주 순다해협 쓰나미 등 자연 재해로 인해 재난 성금을 기부했을 때 법인세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법인세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한다. 상기 기부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UU No.36 / 2008) 제 6 조 (1)항 i, j, k, l 및 m에서 기부금 손금 산입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정한 국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기부금

2월 자카르타 폭우와 홍수 경보



▲ 땅그랑 하늘에 먹구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며 비를 내리기 시작했다. 2019. 1. 17 [사진: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 (BMKG)는 2월 상순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이로 인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보를 발령

했다. 2013년에는 자카르타 역사상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다. 자카르타 랜드마크인 호텔인도네시아 앞 로터리와 대통령궁이 침수됐고 자카르타 전체 교통이 마비됐으며, 20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자카르타는 1996년과 2002년, 2007년, 2013년에 큰 물난리를 겪었다. 이에 관련, 자카르타에는 5~6년 주기로 대홍수가 발생한다는 속설이 있다. 2018년에는 큰 홍수가 기록

되지 않아서인지, 자카르타 시민들은 올해 대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기상 당국은 홍수 주기는 없다고 일축했다. 아구스와유 라하르조 BMKG 항공기상 담당 국장은 2월 초에 올해 우기가 절정에 달하면서 집중호우와 이로 인한 홍수가 예상된다. BMKG 공식 웹사이트 www.bmkg.go.id에 올라온 예보에 따르면, 자카르타에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완만한 수준의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관내 일부 지역은 홍수를 경험

할 수 있다. 반둥공과대학교 기상학자 아르미 수산디는 북부 자카르타 지역의 경우 집중호우로 강우량이 증가하는 동시에 만조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상류 지역에서 흘러내린 강물이 한꺼번에 만나면 홍수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는 중부 자카르타와 남부 자카르타에서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매일 6시간씩 시간당 10밀리미터의 비가 내리면 자카르타가 침수될 수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27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Best Poly Bag manufacturer" in Indonesia since 1991

eva-mendat
Giant
Best Quality
Fast Delivery

- Poly Bag (LDPE, HDPE, PP, EVA)
- Garbage Bag
- PE Sheet (plain, embossed)
- Zipper Bag
- PVC Bag
- Shopping Bag
- OPP Bag
- Strapping Band

Contact

Marketing Office T. (62-21) 440 3926 F. (62-21) 440 3944

E-mail: bhjangjk@indosat.net.id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인니 금융서비스산업, 경제성장 주도하기 아직 역부족”

인도네시아의 금융서비스산업은 경제성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크지만, 대출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은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됐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4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와 파라항안 가톨릭 대학교는 1%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면 10.85%의 대출 금액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목표로 내걸고 있는 6%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보다 23% 대출 확대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청(OJK)은 2019년 대출 금액의 성장은 13%로 예



상하고 있어, 6%의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국가개발계획청의 레오나르드 차관(경제 담당)은 “금융서비스산업은 투자 재원을 공급하는 산업이다. 은행과 비은행 등 금융기관이 그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차관은 또 “많은 인도네시아인이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도 대출성장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이다”라고 덧붙였다.

세계은행(WB)이 2017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금융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 중 라오스 다음으로 낮았다.

프레쉬 오더

프레쉬오더 생산
스타일당 3~4개 컬러 1만장 이상
컨테이너 베이스
Mens/Ladies/Girls/Boys

캔슬오더/STOCK:대량수량매입

+62 858 1369 4992
6shg10@gmail.com

PT SHINHAN GLOBAL INDONESIA

텍스월드파리展 이달 11일 개막

-모다크레아 백산자카드 아진교역 등 중견 섬유기업 72개사 참가
-메세프랑크푸르트 파리, ‘페어리랜드 포 패션’ 주제 패션전문쇼 위상 (The Fairyland for Fash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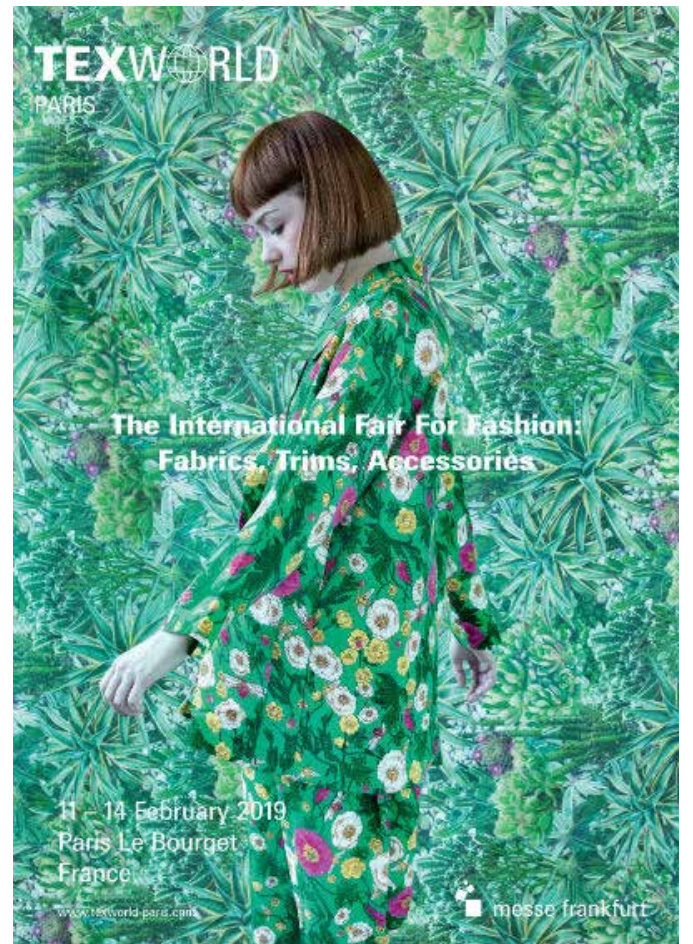
국내 패션소재 전문 기업 72개사가 ‘준계 텍스월드 파리’에 참가한다.

올해 제 43회를 맞는 세계적인 섬유패션 전문 전시회인 ‘파리 텍스월드 준계 2019(Texworld Paris)’가 오는 2월 11일 개막, 14일까지 사흘간 파리 르 부르제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텍스월드 전시회는 코튼, 데님, 친환경소재, 자수 및 레이스, 니트, 화이버, 기능성 직물, 린넨 앤 헴프, 프린트직물, 실크, 트림 및 부자재, 울 직물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시회다.

이번 준계 텍스월드 파리는 ‘더 페어리랜드 포 패션(The Fairyland for Fashion)’을 주제로 패션에 정조준한 전문 트레이드쇼를 확고히 하고 있다.

섬유 원자재부터 의류 액세서리까지 패션을 총망라하는 텍스월드 파리는 어패럴 소싱과 아반텍스, 레더월드, 솔과 스카프, 텍스월드와 텍스월드 데님 파리 쇼가 동기간에 함께 동시에 개최되는 글로벌 섬유 원자재 의류 액세서리 전문 전



시회로 위상을 강화해왔다.

전시 주최사인 메세프랑크푸르트 프랑스는 2002년 설립 이후 글로벌 패션산업의 환경에 부합한 최적의 전시회로 텍스월드의 성장을 견인해왔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인 ‘페어리랜드 포 패션’에 대해 메세프랑크푸르트 프랑스는 “전시기간인 나흘간에 걸쳐 1800개 이상의 전시업체들과 전세계 모든 대륙의 생산자들의 전문성과 기술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자 새로운 발견과 비즈니스의 연계, 평균 14000명 이상의 핵심 인물들이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의미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절대 놓치면 안될 이벤트들과 더불어 차별화된 패브릭컬렉션, 획기적인 제조기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노하우들도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텍스월드 파리는 혁신적인 브랜드와 의류 완제품 및 텍스타일 원료를 개발하기 위한 바이어들 즉, 레디투웨어와 오프투웨어, 액세서리와 온오프 매장, 개별 디자이너 등 전세계 바이어들이 해마다 전시회를 지속 참관하고 있다.

탁월한 기술력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1800개 이상의 전시 참가 업체들이 이번 텍스월드 파리에 서 3만명 이상의 참관객들을 맞이한다.

1년에 2회씩 열리는 텍스월드는 지난 9월 27개국 1041개사가 전시회에 참가해 활발한 비즈니스의 장을 펼쳤다.

기본 베이직부터 창의적인 디자인까지 패어에 출품하는

제품들의 균은 어느 전시보다 다양하며 깊다. 특히 전세계 패션 전문가들의 방문은 해마다 증가했다. 유럽 출신의 디자이너, 섬유 바이어, 컬렉션 실무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사들이 함께하며, 전시 외에도 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다루는 다양한 강연 및 포럼, 패션쇼(Catwalk) 등의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 섬유 어패럴 전문 기업들도 텍스월드파리에 개별관과 국가관의 형태로 참가한다. 4번 홀에서 한국관으로 참가하는 기업은 총 44개사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전세계 우븐과 니트 직물을 수출하고 있는 강소기업으로 올해 2019 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30년 섬유 기업 ‘모다크레아(대표 이정민)’를 비롯 텍스밀과 신일텍스, 아진교역, 백산자카드 등 총 44개 국내 섬유전문 기업들이 한국관에 참가한다.

또한 개별관에는 국내 대표 기업들이 대거 출동한다.

‘스타텍스’ 브랜드로 전세계 폴리에스터와 니트직물 부문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주)성안(대표 박상태)을 비롯 초경량 박지 ‘실키아’로 유명한 대구산지의 대표 기업 (주)덕우실업(대표 이의열)과 협성티알디, 제이케이패브릭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대표 섬유소재 기업들이 27개 전시부스에서 수출 비즈니스 장을 연다.

대한민국 No.1 보일러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섬유 / 목재 / 종이 / 석탄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특허번호 10-0870543 호

- 콘덴싱 보일러
- 횡형수관식 보일러
- 수관식 보일러
- 노통연관식 보일러
- 초소형노통연관식 보일러
- 무압관수식 보일러
- 진공온수 보일러
- 관류형 보일러
- 소용량입형연관식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자카르타 : 유성열 Hp : 0812 1902 2247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한상윤 Hp : 0822 9999 1447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Tel. 021.5949.4000 / 5949.4222 Fax. 021.5949.4666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439 0006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PT. HANSHIN AIR COMPANY

중상해 인터텍스타일 3월 12일 개막

해마다 쾌속 신장 작년 전세계 참관객 15% 늘어
중국 춘절 이후 최적시기 파빌리온 및 액세서리관 구성

중국 패션산업 최대 소싱기지로 손꼽히는 '상해인터텍스타일'이 오는 3월 12일부터 사흘간 중국 상하이 국립 전시컨벤션센터(NECC)에서 열린다.

해마다 연간 방문 바이어 수가 수직 상승중인 상해 인터텍스타일은 지난해 104개국 8만2314명이 방문해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올 봄 지구촌 섬유 관련 종사자들이 대거 방문하는 2019 춘계인터텍스타일은 혁신적이며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미래 트렌드를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중국 패션 산업 최대 소싱 시기인 중국 춘절 이후에 개최되면서 최적의 타이밍과 비즈니스 성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메세프랑크푸르트 측은 "중국 시장 접근에 용이하다는 지리적 이점과 더불어 여러 강점으로 지속적인 해외 참관객 수치를 기록중"이라며 "지난해 춘계 전시회 방문 상위 10대 국가에는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 미국 등 전세계 패션 트렌드를 주도하는 바이어들은 물론 의류 생산업체, 무역회사, 디자이너, 유통업, 전자상거래 등 글로벌 공급망 내 다양한 업종의 산업 종사자가 참관했다"고 전했다.

원활한 소싱 프로세스 위한 제품군별 특화존 형성
메세프랑크푸르트는 이번 전시에서 국립전시컨벤션센터 내 16만 평방미터에 해당하는 6개홀을 모두 사용할 예정이다.



원활한 소싱 프로세스를 위해 각 제품군별로 특화존을 구성해 참관객들이 원하는 제품 및 업체를 찾는 것을 용이하게 할 전략이다.

액세서리 비전을 포함해 각 제품군 별 전시 면적을 증가할 전망이다.

참관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특화존은 5.1 홀에는 ▲국가관(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대만 터키 밀라노 우니카) ▲단체관(한국섬유마케팅센터, 인도상공회의소) ▲지속가능성(친환경 테크놀로지 서비스) ▲디지털 프린팅(원단 프린팅 기술 및 기계 현장시연) ▲기능성 랩(애슬레저 액티브웨어 란제리 스포츠웨어용 첨단소재) ▲프리미엄 울(맞춤정장용 고급 울 소싱) ▲살롱 유럽(유럽 참가업체 우수 패브릭) ▲버브 포 디자인(아시아 유럽 미국 디자이너 및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고급스러운 프린트)으로 구성된다.

6.2홀에는 다양한 종류의 액세서리 및 부자재를 다루는 ▲액세서리 비전이, 7.1홀에는 원단부터 액세서리까지 폭넓은 제품을 아우르며 데님 솔루션과 트렌드를 제시하는 ▲비욘드 데님이 구성된다.

4개 전시회와 공동개최 비즈니스 홍보효과증대

이번 전시회는 중국 상해 인터텍스타일 홈텍스타일을 비롯 안 엑스포, 프리뷰인차이나, 니트패션진시회와 함께 개최된다.

모든 비즈니스 플랫폼을 한 곳에서 제공함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가장 촉망받는 소비 시장에서 열리면서 더욱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세미나와 패널 토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 관련업계 인사이드와 트렌드 포럼을 통해 2020 S/S 시즌을 대표할 제품을 전시한다.

한편, 2019 중국 상해 인터텍스타일 춘계 전시회는 메세프랑크푸르트 홍콩지사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중국섬유정보센터와 공동 주관한다.

특허청, 상표 브로커 K-브랜드 무단선점 경보시스템 운영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특허청, 2019년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 시행

특허청이 올해 해외 상표 브로커에 의한 K-브랜드 무단선점 대응 조기 경보시스템을 기존 중국지역을 넘어 베트남까지 확대 운영한다.

특허청은 6일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혁신 성장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를 추가 배치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양상을 고려해 지재권 보호망을 구축하는 등 예산 191억원을 투입해 해외 지재권보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IP-DESK는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해외 현지에서 지재권 확보와 분쟁대응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올해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등 8개 국가 15곳에서 운영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해외 경쟁사의 위협특허 분석을 통한 분쟁 예방 전략 또는 경고장·소송 등 분쟁 발생 때 필요한 대응 전략도 제공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사에 맞는 해외 지재권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발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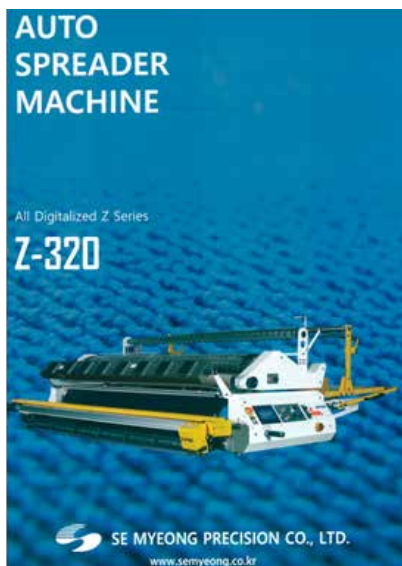
동일한 지재권 이슈를 보유한 기업 간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해 분쟁 해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 25개 협의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상표 브로커에 의한 K-

브랜드 무단선점 대응 조기 경보시스템을 베트남까지 확대하고, 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의 유통차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전체 14곳의 IP-DESK에서 7천590건의 지재권 법률상담을 했고, 분쟁컨설팅으로 547개 기업, 9개 공동대응협의체 구성으로 82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상품 게시물(URL) 2만1천854개를 삭제하는 성과를 냈다.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사업으로 우리 기업들이 혁신역량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길 바란다"며 "외교부, 산업부, 코트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물론 해외 지재권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또는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co.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www.k-ipc.or.kr)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세명정밀 자동 연단기**
- 유일한 디지털 방식의 자동 연단기
 - 레이온, 스판 yd 당중량 100그램 짜 얇은 원단도 연단이 가능한 유일한 연단기
 - 디지털 방식으로 우븐, 니트, 스판 원단 무장력으 로자동연단
 - 봉제, 가방, 신발, 자동차시트, 공장 설치사용



- 세명정밀 원단 수축율 교정기계**
- 스판, 레이온 원단 롤, 절 별 LOT차에 의한 일 정하지 않은 수축율 개선하여 재단 봉제시 일 관성 보장
 - 디지털 방식으로 바이어, 스타일, 원단 LOT 수축율 자동 입력시스템
 - 온도 속도 디지털 방식으로 자동 제어됨



- 세명정밀 전기보일러**
- 용량별 3K,5K,10K,20K
 - 성과품질, A/S 보장
 - 전기보일러의 HEATER 나쁜수질에 관계없이 장기간 사용가능 품질 보장



- PERFECT BOILER**
- 매연이 없는 친환경 보일러
 - 중폭 시스템으로 적은 연료 폐기물로 고온 고압유지
 -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설치 사용
 - 소각, 기름, 가스, 열매보일러 스킴링, 소각기름 가스 열매보일러, 수리, 보수 스템배관공사...재단테이블 제작설치

P.T PERDANA ABADI SUKSES

세명정밀 (SEMYEONG PRECISION) INDONESIA SOLE AGENT
퍼펙트보일러 (WINNER TEK KOREA) INDONESIA SOLE AGENT
JL. BOULEVARD BARAT RAYA RUKO INKOPAL F53 TEL : 021 4585 9110
설치상담 및 a/s : 085 882 701 823 lee jong chan

EMAIL : gildong27@gmail.com

화섬 · 편직 · 염색 · 봉제공장 추진 세아상역 과테말라 4500억 신규투자 프로젝트

폴리에스테르사 이용, 완제품 미국 수출 관세 32% 면제
매머드 버티컬 공장 해외공장투자 최대 규모 통 큰 전략
전 세계 27개 법인 805개 봉제 라인 1일 의류 250만 장 생산
의류벤더 해외 면방이어 화섬 원사까지 진출 업계 주목
인니 원텍스, 편직 · 염색 캐퍼 연 3만 2천 톤 코스타리카 면방공장
작년 매출 2조 원 이익 1000억 창사 이래 최대 다각경영 본격화



▲ 세아상역 김웅기 회장

국내 최대 의류수출벤더인 세아상역(회장 김웅기)이 다각경영을 본격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자체공장에 섬유 전후방 스트립 전반에 걸쳐 매머드 버티컬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86년 니트 의류 중심의 의류 수출을 시작해 초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세아상역은 해외 27개 법인의 현지 공장에 자체 봉제 생산 규모만 대형 805개 라인을 통해 1일 250만 장 규모의 의류를 생산해 미국과 유럽, 일본(유니클로) 등지로 수출하고 있

는 일류기업으로 우뚝 섰다. 단순 봉제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원텍스타일을 통해 연간 3만 2000톤 규모의 편직 및 염색 캐퍼를 가동하고 있고 코스타리카에 3만 2000추 규모의 면방공장에 3만 추 규모의 증설에 착수하는 등 섬유 전후방 스트립 중 화섬 설비만 갖추지 않고 사실상 매머드 버티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세아는 이같은 니트 의류 주종의 세계 최대 생산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이어 급기야 중남미 중 미국과 가장 가까운 근접 국가인 과테말라에 초대형 버티컬 섬유

유공장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본격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세아는 무려 4500억 원을 투자해 과테말라에 최첨단 폴리에스테르사 생산을 위한 화섬공장과 편직, 염색공장을 신규 진출하기 위해 매머드 공장 건설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과테말라에 71개 라인 규모의 봉제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세아상역은 현지에 화섬 원사공장과 편직, 염색공장을 대규모로 하여 가까운 미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아가 과테말라에 설립할 화섬원사(폴리에스테르)생산을 위한 종합공정과 방사공정의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과테말라에서 폴리에스테르 원사를 생산, 이를 편직, 염색, 봉제할 경우 32%인 미국 관세의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중국산보다 유리한 가격 경쟁력의 비교우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아가 과테말라에 신설한 4500억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는 앞으로 3년간 건설과 설비 구축

기간을 거친 후 본격 가동하게 되며 이것이 완성되면 국내 벤더 중 유일하게 봉제와 편직, 염색, 면방에 이어 화섬까지 망라하는 섬유 전후방 스트립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 세아는 이같은 섬유 관련 스트립 투자 외에도 아프리카 가나에 합판공장을 인수해 가동하고 있고 니과라과에 대

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미얀마에 공단조성 등 다각경영에 착수했거나 준비 중이며 미국 LA 인근에 골프장을 운영하는 등 글로벌 일류기업을 향해 거침없이 하이킥하고 있다. 세아는 지난해 매출 약 2조 원에 창사 이래 가장 높은 이익 규모인 1000억 원 규모의 이익을 내 한세실업과 한솔 등 니

트 의류 '빅3' 중 가장 우등생 경영을 하고 있다. 세아는 모기업인 세아상역과 글로벌 세아, 세아인스 및 패션 회사인 인디에프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으며 해외 27개 법인(미국 · 미얀마사무소 포함)에 6만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국제섬유신문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930mm
35mm
2. 25mm Trimdek
1040mm
25mm
3. 35mm Spandek
920mm
35mm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420mm
110mm
5. Boltless-Seaming Type 55mm
736mm
55mm
6. Genteng Metal (기와)
82mm 35mm
20mm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KITAS / KITAP / IMTA SILVER VISA (DI ATAS 55 TAHUN)

저희 오롬 컨설팅은 KOGA회원업체 전문 비자 키타스 수속 대행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 업체는 한국대사관 및 인니 노동청 옆건물에 위치해 신속하고 편리합니다.”

“20년의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 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orom
Since 1997

Staff Orom 2018

노동청 Surveyor 대사관
Gedung Surveyor Indonesia
Mezzanine – PT. OROM
19thFloor – PT. Doowang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Phone : 021-4585 4910 / 4911 / 4207 / 6898 | Email: visa.orom@gmail.com | Website : oromvisa.com
Contact Person : Suhada (0812-9759-8638), Nita (0811-168-1462)
Orang Korea : indocity1991@gmail.com | : indocity1991 | (핸드폰) 0812 1922 1462

고속도로 오토바이 주행 허용... 교통부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야”



인도네시아의 밤방 하원 의장이 앞서 국내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전용 도로를 설치하고 오토바이 주행을 인정하도록 제안한 것에 대해 교통부가 신중한 자세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일자 보도에 따르면 교통부 부디 국장(육상 운송 담당)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주

행을 허용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고속도로법에 대한 신중한 해석과 안전성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령 ‘2005년 제15호’는 고속도로 통행 가능 차량을 사륜 이상의 자동차만 허용하고 있지만, 수라바야와 동부 자바의 마두라를 연결하는 수라마두 다리와 발리의

만다라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주행을 가능하도록 시행령 ‘2009년 제44호’를 제정해 오토바이 전용 차선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했다.

그러나 부디 국장은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시행령 2009년 제44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1) 고속도로 대부분이 주거 지역에서 떨어져 있어 바람이 강할 경우 이륜차 운전자들이 위험, (2) 고속도로는 자동차가 고속으로 장거리를 달리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륜차는 그 수준까지 속도를 낼 수 없음, (3) 수라마두 다리의 길이는 3km, 발리 만다라 고속도로는 12km로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비교적 거리가 짧음 등을 꼽았다. 부디 국장은 “고속도로 길이가 짧고 오토바이 전용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밤방 의장은 앞서 “국민 대다수가 이륜차를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것은 불공

평하다”라며 오토바이 주행을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70%가 오토바이 관련 사고로 오토바이 안전 대책은 큰 과제가 되고 있다.

14일부터 수까르노하따 공항 고속도로 새로운 통행료 적용



인도네시아 도로 공단 자사 마르가(PT Jasa Marga)는 14일부터 수까르노하따 공항과 자카르타 북부를 연결하는 스닷모 고속도로(14.3킬로미터) 통행료가 새롭게 바뀐다고 밝혔다. 1종(승용차, 소형 버스, 소형 트럭)과 2종(2축 트럭)의 요금이 상승한다.

현지 언론 드릭 11일자 보도

에 따르면 자사 마르가의 수박띠 이사(운영 담당)는 “1종의 통행료는 현재 7,000루피아에서 7,500루피아로, 2종은 8,500루피아에서 1만 루피아로 인상한다”라고 말하며 “한편, 3종(3축 트럭)은 1만 루피아에서 동결한다. 4종(4축 트럭)과 5종(5축 이상의 트럭)은 모두 1만 1,000루피아로 각각 1,500루피아, 4,000루피아 인하한다”라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요금은 고속도로법 ‘2004년 제38호’에 따라 각 지역의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2년마다 개정된다.

HANSHIN

AIR COMPRESSORS

(주)한신기계공업 인도네시아 총판대리점

인도네시아 한인기업과 함께 한 18년!!!

중부자와 서비스지점 오픈 !!!



NH 시리즈(피스톤 콤프레서)
국내 최대 판매, 유일 수출
피스톤 콤프레서 (1~20마력)



RCH 시리즈 (소형스크류 콤프레서)
설치면적 최소화, 경량화, 정속화 실현
(5~20 마력)



AD-HT 시리즈 (일체형 드라이버)
에프터 쿨러, 에어필터, 에어 드라이어 일체형으로 설치면적 최소화.
입구온도 80°C 설계로 더운 동남아 지역에 최적함.



GRH 시리즈 (오일 인젝션 콤프레서)
스크류 : 독일(GHH-RAND사)
세퍼레이터 : 일본



AL,CDH 시리즈 (오일프리 콤프레서)
완벽한 오일 차단, 최장의 운전시간 보장, 최고의 오일프리 스크류 사용
AL 시리즈 : Kobelco(일본) CDH 시리즈 : GHH-RAND(독일)



매월 정기점검 서비스

국내 구입가 보다 저렴한 가격

세계적으로 성능이 인정된
독일 GHH RAND 스크류사용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현지인 매니저 / MARIONO : 0812 961 8455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인도네시아투자 이것만은 알고 하자 (14)

인도네시아속 또 하나의 색채 이슬람

이슬람문화 연재<2>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유연화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 1. 인도네시아 이슬람 연계조직을 알아본다
- 2. 인도네시아 주요 이슬람단체

이슬람 구성 컨셉
이슬람 성전 쿠란 + 하디스



이슬람학 이론(Teology) 숭배, 율법, 정치, 철학, 종교철학, 개혁, 역사



하나님 알라



사도 무함만

이슬람

쿠란(성전), 하디스(무함만 언행록) 법률(Fiqih), 믿음 Muslim, 신행 (Ijma, Qiyas)

NU, Muhammadiyah, UIN 대학(적국12개대학)이슬람 최고의 핵심 두뇌역할 종교부UIN 대학출신 거의 포진
 추가단체로는CMI(이슬람 학술 단체협의회), MU(이슬람 원로 울라마 협의회)단체라 할 수 있음
 황기자책, 무함마디아, NU참조문헌 일부발췌
 NU 단체의 경우 이슬람신도 약 4 천만명을 보유하고 있고, 보수 세력의 전통 이슬람방식의 단체에서 지난 98년이후 기업경영에 뛰어들어 전국에 중소기업 조합을 설립하는 등 각종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각종 생활 필수품을 헐값에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있고, 금융 및 플랜테이션, 식품품 생산, 출판, 여행업, 방송 부문등의 분야에도 진출했다.
 그러나 아직도 전통 이슬람학교 프산트렌이 전국에 골고루 퍼져 있으며, 현재 지난 구스두르 전 대통령 와히드 총재 이후 현재는 하심무자디에 이어 싸잇아킬씨가

현 총재직을 맡고있다. 구스두르의 경우 PKB 라는 국민 계몽당내 무헤이민이스칸다르와 같이 당내정치를 주도하고 있고, 하심무자디씨는 현재 NU 총재로서 서로 다른길의 정치적 동반자와 더불어 경쟁자적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NU내의 조직 내부에는 사실상 분열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들어서 NU 싸잇아킬시러 지현총재, 무헤이민이스칸다르 국민 계몽당총재, 구스두르 대통령의 딸 이브예니, 무이의장 마루아민씨의 역할 등으로 각각 힘이 분리되고 있음을 이번 대선의 정치세계를 통해 알아 볼 수있는 모습이다.
 “무함마디아의 경우 현재 젊은 층의 지도자 단쌘수딘씨가 의장을 맡게되면서, 정치계에서는 새로운 종교계의 지도자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새로운 이미지의 명성을 받고 있는 인물로 떠오르고 있었으나, 지난 1년전 UGM대학

출신의 이슬람 석학 인류학자의 하이데르씨가 무함마디아 현 의장직을 맡고있다. 그러나 무함마디아의 경우에도 무함마디아 자체의 국민 수권당이라는 PAN당이 있고, 초기 전임 무함마디아의 장으로서 개혁파의 주요 인물중에 하나였던, 전임 국민협의회장 아민라이스씨가 역임한 바 있고, 지금은 종교 지도자라기 보다 CEO형의 이슬람신도의 바디르씨에 이어 현 경제조정장관 하타라자씨가 그 자리를 맡고 있었던 바있다.

3. 이슬람의 유연화 정책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유연화 정책은 사실상 인도네시아 이슬람 역사상1956~1959년 전후로하여 이슬람국가 (Darul Islam)를 주도하고 나섰던, Masyumi,NI (Negara Islam Indonesia), TI (Tentara Islam Indonesia)단체들이 1945년 독립전, 독립 이후에도 수카르노정부와 끊임없는 싸움으로 이슬람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정부와 이슬람이 분리 (Seculer)되는 새로운 측면으로 이데올로기하에 이슬람을 기초 근거로 하되 정치적 성향이 강한 정부적 역할이 승리하게 되므로써, 상기단체가 고대하고 염원해왔던 이슬람제국(DI) 국가건설은 실패하게 된 사례이다.”

4. 이슬람 유연화정책이 시작되는 시기는...

최근 인도네시아 최고의 이슬람 단체가 아닌 최고의 이슬람대학, 전국 이슬람학교의 우수학생들의

두뇌가 모인다고 하고 있는 이슬람 최고의 인재대학 UIN 대학의 변화, 전국 12개주에 있는 이들 국립이슬람대학을 대상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까지 대대적인 이슬람변화의 물결, 그 변화와 개혁의 새로운 신이슬람정책을 시도하고 있는것이 육안으로도 역력히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찌뽏탓에

의 물결속에 이슬람 유연화정책이 시작되고 있음을 전세계 대학의 변화, 국내 인도네시아 대학의 변화등을 통해 UIN 국립 이슬람 대학에서도 세계 교육계의 변화에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변화의 정책 유연화정책이 스며들고 있다고 볼 수있다.

이미 2004년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전



위치하고있는 UIN 대학의 경우 순수종교 이슬람대학 (AIN)에서 이슬람 종합대학(UIN)으로서 글로벌화한 학문 교육장소로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바로 UIN대학내의 로고와 교육과정의 인터내셔널화한 현대화 교육의 변화

UIN 대학총장 아즈마르디아즈라씨는 기존의 순수 이슬람대학을 이슬람 종합대학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교육개혁정책을 통해 이슬람대학의 새로운 변화와 바람을 불어넣었고, 사실상 이때부터 이슬람의 새로운 변화의물결과 더불어 이슬람 유연화

								
왕갈비 199,800	생갈비 214,800	꽃살 174,800	생등심 204,900	차돌배기 114,900	갈비살 프라이م 214,900	불고기 189,000	삼겹살 84,800	돼지갈비 104,900



ARANG 22

자카르타에 가장 오래되고 전통있는 식당 아랑 22 새로운 모습으로 고객분들 모십니다. Best Price & Quality 품질 좋은 고기만 고집하는 아랑 22가 정육 식당으로 거듭난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품질로 각 공장에 식자재 납품 합니다..

아랑22는 각 공장에 냉장차로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배송지역: 찌까랑, 까라왕, 땅그랑, 세랑, 수방, 수까부미, 중부자외등

021-5140-1245
021-5140-1246
Kawasan Niaga Terpadu Sudirman (SCBD) Lot. 8 Jl. Jend Sudirman Kav. 52-53

정책과 더불어 이슬람 현대화의 개방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그 뒤를 이어 UIN 대학총장 까마루딘 히다얏의 유연화정책의 밑그림이 그려졌고, 로사다총장에 이어 민주화 정책과 개혁개방에 알맞게 지금은 신임 여성대학총장 아마니루비사야가 2019-2023년을 맞게되면서 그에 대한 개혁개방의 바람 유연화정책의 이슬람 대학가에 부는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 닥칠 것으로 보고있다.

그 이후 자체 독립과정에서 종교부에서만 운영되어 오던 이슬람 대학의 재정이 종교부와 문교부 양 부처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지원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은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아시아권의 나라들의 국제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이들 나라와 대학과의 국제적 교류의 교육 차원하의 교환교수 제도 및 인적자원 교환교류등 매우 본격적으로 국제 자매결연 학연 협력 프로그램등이 이슬람 서방세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고있다.

심지어는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 교육차원을 통해 불교계 및 기독교의 지원을 받아 학교 건립 발전 기금으로써 쓰게 되는 대개혁의 바람을 일으켜 종교적으로 오픈하는 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UIN대학은 지금 아주 몰라보게 진화 성장하고있다. 이와같은 개혁의 바람에 의거 이미 대학내의 의과대학, 공과대학, 농과대학, 국제관계학이 들어섰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를 찬성하고 일부 급진파의 성향 이슬람 세력에서는 UIN 대학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미 UIN 대학의 지난 IAN대학과 같은 기존의 이슬람종교적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다른 한편으로 이를 우려하고 걱정하는 교수들도 적지않게 있다.

5. 이슬람 유연화정책의 핵심 멤버들은...

이슬람 유연화정책의 핵심 두뇌의 멤버들은 바로 이슬람대학에서 타 외국으로부터 석,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 강의하고 있는 캐나다의 메길대학, 네덜란드 및 영국, 호주, 미국대학등의 서방 세계



계국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그들이 바로 이슬람 유연화정책의 주인공 핵심리더들이라고 볼 수있고, 그들 각 대학내의 졸업생 출신들이 바로 현재 이들 대학의 주요 핵심멤버로서 자리잡고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된다.

이들은 서방 세계대학들과의 끊임없는 교류관계로서 이슬람대학을 발전하기 위한 추진하에 전격 개방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있으며, 여기에는 비무슬람국가 미국이나 일본등 서방세계에서 이들대학에 학술 교류차원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또는 미국의 NGO 단체등에서 보낸 학생들이 이들 대학이나 이슬람 단체 협의 회등에서 공부 연구 노력하고 있는 모습도 종종 볼 수있겠다.

그리고 엔우의 경우 세계 종교 평화회의의 목적으로 미국에 본사를 두고있는 통일교회주최의 세계 이슬람종교 평화회의에 매년 참석하고 있고, 무함마디아의 경우 기독교단체가 주도하는 아세안 지역종교평화회의의 포럼 세미나 또는 전세계 종교 평화회의의 세미나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양대 산맥의 이슬람단체들도 예전과 달리 다른 종교와의 깊

은 유대관계를 시작으로 아주 유연한 자세하에 이들 종교와의 친선과 화합을 통하여 세계 종교 평화회의에 주도적 리더역할을 해오고있다.

주요포인트

UIN 대학을 비롯하여 무함마디아대학, 파라마디나대학등의 총장 및 교수진들이 인도네시아 정치활동의 주요 리더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들 UIN대학의 까마루딘히다얏, Paramadina대학총장 아니스바 스웨덴 현 자카르타시장등 해외에서 공부한 석학들로서, 인도네시아 젊은층의 주요리더로서의 학자적 리더역할을 충분히 해 오고있다.

6. 일본정부의 인도네시아 이슬람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알아본다

일본정부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인도네시아내의 이슬람단체와의 친선을 도모하고 매년 인도네시아 주 재일본대사등이 이들 NU, 무함마디아, UIN 대학총장 또는 단체의장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하여 종교적 차원을 떠난 문화교류적 차원하에 친선 외교관계를 단계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이미 일본정부의 경우 인도네시아내의 식민지하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등을 사려 인도네시아 각 분야별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특히 이슬람부문의 주요단체와의 긴밀한 외교적 교섭을 통해 다방면을 통한 아주 두터운 외교정책을 펴고있다.

7. 우리도 미래 지향적인 바람을

위하여 이슬람단체와 문화적교류가 필요할 때이다

우리도 일본이 인도네시아내에서 취하고 있는 깊이있는 친선 외교정책을 보다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향후 5년 이후 우리교민 5만시대, 8만시대 그리고 10 만시대로 이어질 경우 우리도 보다 폭넓은 차원하에 우리 교민의 안정과 치안유지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이와같은 절차의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 할 때이라고 본다.

참고: 인도네시아 정치인들 대통령마저 인도네시아 리드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슬람신도들과의 밀접한 유대관계 및 친 화합정치를 펼쳐 오고있는 가운데, 우리 외국

인 투자기업들의 경우 더욱 그와 같은 관계가 필요 할 때라고 보 면된다.

최근 몇 년사이 우리 한국의 투자기업들이 적지않게 투자를 하고있고, 단순 경제적인 측면의 투자가 아닌 각 분야별 교육, 문화, 체육,사회등의 적지않은 정, 경제적 차원을 넘어 문화적 교류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한국 기업의 투자가 단순 자카르타를 넘어서 인도네시아 전국 33 개 지방도시에도 아주 폭넓게 투자를 하게 되므로써, 인도네시아 투자 성공전략 그리고 교민의 안전 및 복지등의 평화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각 분야별 활발한 교류의장이 필요 할 때이라고 감히 조언하고 싶다.

학력
IAN 자카르타대학 졸업
U 대학 대학원 인류학 석사졸업
PTK 경찰 대학원 2년과정 수료
UN 국립 이슬람 대학교 박사 졸업

경력
현 국회 보좌관 / 현 UNUA 대학교수
상공회의소 대외협력 국장
봉제협회의 대외협력 부회장
교육, 문화, 전문 강의 전도사
인적자원 네트워크 컨설팅

알리, 안선근

월간 KOGA지 광고를 제안합니다.

월간 봉제신문 KOGA지는 봉제 관련업체의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봉제관련 기업 및 자재, 장비,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봉제신문 KOGA지(월간)
특 징

- 1) KOGA지는 봉제협회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일 발송되며 관련 기업 약 300여업체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내 각 기관 및 많은 기업 에 무료 배송하고 있습니다. 개별 SNS를 통한 전달로 인도네시아는 물론 한국, 베트남 등 약 10여개국 5,000여명의 독자에게 전달됩니다.
- 2) 전달 하고자 하는 정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홍보 할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높습니다.
- 3) 설득력이 높으므로 기업이미지와 홍보의 효과를 한층 높여 줍니다.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5579-7281 (mr. kang) 0858-9060-0962,
이메일 : khong3000@gmail.com

탁월한 선택, 후회없는 결정
Kendal / Park By The Bay

중부자바내 스마랑 전략적 위치

구분	토지면적	인구	1년 졸업생	GDP성장률	주요인프라
스마랑지역	39,800Km ²	3백3십만명	150,000명	6%	탄중항구, 스마랑 국제공항

Vietnam-Singapore Industrial Park
(베트남-싱가포르 산업단지)

VSIP BAC NINH 2007
Area : 700ha(500ha IP and 200ha C&R)
Total 54 projects

VSIP HAI PHONG 2010
Area : 1600ha (500ha IP and 1100ha C&R)
Total 32 projects

VSIP NGHE AN 2005
Area : 750ha
Phase 1: 279ha (198ha IP and 81ha C&R)

VSIP HAI DUONG 2015
Area : 150ha IP
Total 1 pro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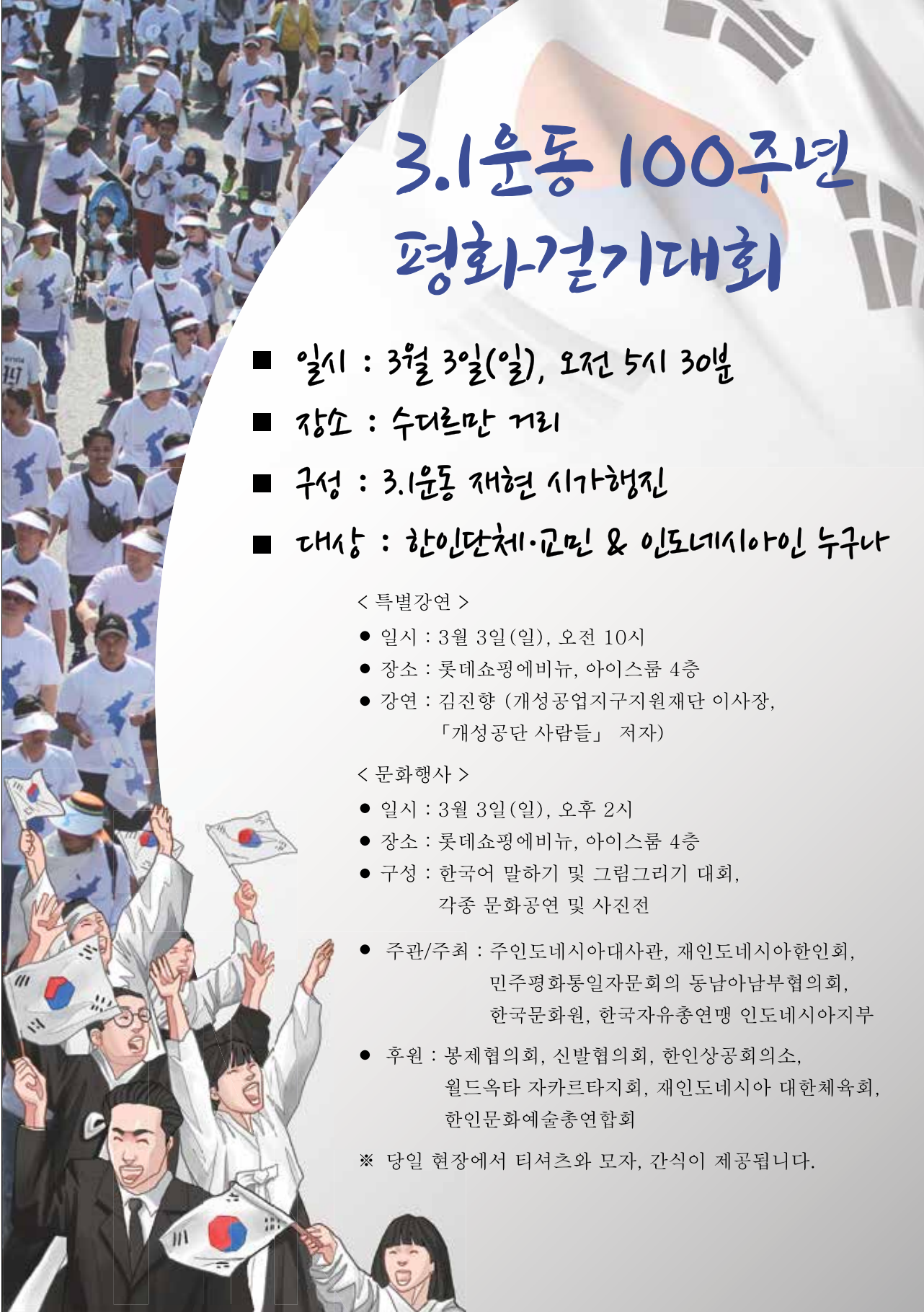
VSIP I BINH DUONG 1996
Area : 500ha IP
Total 238 projects - 100% occupied

VSIP QUANG NGAI 2013
Area : 1020ha (500ha IP 520ha C&R)
Total 09 projects

VSIP II BINH DUONG 2005
Area : 2045ha IP (1345ha IP and 700ha C&R)
Total 206 projects

구분	VSIP박닌	VSIP하이퐁	VSIP응에안	VSIP광나이	VSIP빈중
토지가격	US \$70	US \$95	US \$38	US \$38	US \$70
공단특색	삼성, LG 1시간거리내	항구도시 (북부최대항)	인력풍부 (3백3십만명)	두산중공업	외국계최다 투자지역
추천업종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건설자재, 자동차부품	섬유, 신발 (노동집약)	섬유, 신발 중공업	전자/전자 식음료, 제약
최저임금	3급지	1급지	4급지	3급지	1급지
개발규모	150ha	1,600ha	750ha	1,120ha	2,500ha

산업단지 문의 : 박병현 팀장 (문의메일 : Park.byunghyun@sembcorp.com)
한국 : (82)010-9081-0424 / 베트남 : (84)012-7828-7293



3.1운동 100주년 평화-걸기대회

- 일시 : 3월 3일(일), 오전 5시 30분
- 장소 : 수더르만 거리
- 구성 : 3.1운동 재현 시가행진
- 대상 : 한인단체·교민 & 인도네시아인 누구나

< 특별강연 >

- 일시 : 3월 3일(일), 오전 10시
- 장소 : 롯데쇼핑에비뉴, 아이스룸 4층
- 강연 :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개성공단 사람들」 저자)

< 문화행사 >

- 일시 : 3월 3일(일), 오후 2시
- 장소 : 롯데쇼핑에비뉴, 아이스룸 4층
- 구성 : 한국어 말하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각종 문화공연 및 사진전
- 주관/주최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한국문화원,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 후원 : 봉제협의회, 신발협의회, 한인상공회의소, 월드옥타 자카르타지회,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

※ 당일 현장에서 티셔츠와 모자, 간식이 제공됩니다.

‘저스트 마이 사이즈’ 브라렛 홈쇼핑 40분만에 완판



글로벌 언더웨어 전문기업 엠코르셋(대표 김계현)은 지난 2월 7일 롯데홈쇼핑에서 저스트 마이 사이즈의 수피마 코튼 브라렛이 기록적인 매출로 완판 되었다. 저스트 마이 사이즈의 ‘허그 마이 바디(Hug My Body)’ 컬렉션은 지난 7일 밤 10시 40분부터 진행된 생방송에서 40분만에 9,000세트가 전체 매진되는 기록을 세웠다.

주문 콜 수가 2,500회까지 치솟아 예정된 방송시간 보다 30분 일찍 종료되며 총 매출 11.6억(주문 소비자가 기준)을 올렸다. 특히, 방송목표 매출 대비 203% 달성은 롯데홈쇼핑 18년, 19년 시즌 통틀어 언더웨어 브랜드 중 단연 최고 기록 이이자 ‘저스트 마이 사이즈’ 2012년 국내 론칭 이래 최고 달성률이다. 탄제리 비수기인 겨울, 장기불황이 계속되는 언더웨어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저스트 마이 사이즈의 2019년 S/S 성수기 행보 또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저스트 마이 사이즈의 ‘허그 마이 바디’ 컬렉션은 블루 그린, 로즈 레드, 코튼 화이트, 핑크 스킨, 샤인 블랙 총 5컬러의 수피마 코튼 브라렛으로 구성됐으며, 고품질의 아메리칸 코튼 뿐 아니라 면의 캐시미어라 불리는 수피마 소재를 활용해 부드럽게 몸을 감싸줘 편하게 입을 수 있다.

1. 인도네시아 전지역(공장, 주택, 스포츠센터) 설치 가능
2.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책임준공 서비스
3. 스크린골프 & 영화감상 & 노래방 3 in 1
4. 1년간 무상 A/S(정기방문)

Investment Opportunities to a Human resources

PT. TEEUP VISION INDONESIA
+62-813-1129-8822